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개발*

- 자기결정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을 중심으로 -

임지영(林智英)**

김지현(金知賢)***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모형의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을 근거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여러 상담자들의 응답내용을 통해 고안한 문항, 문헌연구와 기존 척도를 기초로 고안한 문항 등으로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에서 제안한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해당하는 문항풀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일반 상담자의 안면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요인으로 이루어진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15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체 문항은 .857, 하위 요인별로는 .633에서 .77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수렴타당도가 만족되었다. 또한 상담만족, 상담성과와 관련 있는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공인타당도가 만족되었다. 이로써 개발된 척도는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경험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상담만족과 상담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척도임이 검증되었다. 논의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하였으며,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상담만족, 상담성과

* 이 논문은 임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상담은 상담자와의 안전한 관계에서 내담자가 과거에 부정했던 경험을 다시 통합하여 새로운 자기로 변화하는 과정이며(Rogers, 1952), 내담자의 자기이해,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이다(Pietrofesa, Leonard, & Van Hoose, 1978). 이장호(1982)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행동·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을 상담이라고 정의하였다. 종합해보면,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담자-내담자의 '관계', 상담자의 '전문성', 도움을 주려는 상담자의 '마음'이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가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타인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욕구와 동기는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와 신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고, 내담자에게 더욱더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상담자가 치료목적에 따른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욕구와 동기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Augelli, Danish, Allen, & Conter, 1980). 왜냐하면, 상담자들이 상담 학문을 선택하고 유지해가는 동기는 개인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고(Cowan, 1996; Guggenbuhl-Craig, 1971; Pavlicevic, 1997), 상담자가 되고자 했던 개인적 욕구는 상담자의 상담능력을 고양시키거나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Corey & Corey, 2003). 특히 Corey와 Corey(2003)는 상담자의 욕구와 동기에 따라 치료적 개입의 특성이 결정될 수 있고, 이러한 치료적 개입이 내담자의 복지에 이롭거나 해롭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반드시 상담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Deci(1971; 1972a; 1972b)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재적 동기를 강조한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안녕감, 직무만족과 성과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 상담자의 욕구와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상담자의 성장과 심리적 안녕감, 상담만족과 성과에 도움이 되는 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 행동이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의해 유발되고, 유지되며, 인간의 내재적 동기가 환경적 맥락에 따라 촉진,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타율적인 행동에서 자기 결정된 행동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체 선상에서 개념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일수록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다. Ryan과 Deci(2000; 2002)는 내재적 동기의 결정 요인으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라는 3가지 욕구로 이루어진 기본 심리적 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를 제안하였다.

자율성은 행동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기를 원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자유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Deci & Ryan, 2000). 자율성은 자신의 진정한 관심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진자기(true self)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Ryan, Deci, Grolnick, & La Guardia, 2006). 또한 Ryan(2005)은 자율성을 자기 행동과 평가가 거짓이나 왜곡이 아닌 진실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율성이 진실성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유능성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이고자 하며, 개인의 역량과 기술을 연마하고,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고 숙달하고자하는 바람을 반영한다(Deci & Ryan, 1985b). 유능성은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 자체라기보다 자신이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내부 자각,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지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김아영, 2010). 유능성이라는 표현이 자기에 대한 핵심적 느낌과 지각(core sense of self; Ryan & Deci, 2000; Ryan et al., 2006)이 아닌 능력(ability)의 의미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한소영, 2010). Deci와 Ryan(2000)에 따르면, 유능성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 기술,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된다고 한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정서적 결속과 애착을 형성하고자하는 욕구로, 따뜻한 관계로 연결되거나 상호 간에 관여되는 욕구를 반영한다(Baumeister & Leary, 1995; Ryan & Powelson, 1991). 그리고 타인을 돌보고 돌봄을 받는 느낌(Ryan, 1995), 타인과 접촉하고 함께하며 다른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느낌(Ryan et al., 1995), 결혼이나 집단 구성원이 된다는 특정한 결과물과는 무관하게 타인과 안정적인 교제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심리적 지각과 관련이 있다(Ryan & Deci, 2000).

인간의 동기와 목표는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며(Ryan & Deci, 2008),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내적인 주관적 안녕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김아영, 이명희, 2008; Reeve, 2008; Ryan & Deci, 2002). 기본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동기와 안녕감은 감소하고(Ryan & Deci, 2008), 기능적이지 못하며, 불행감을 경험하게 된다(Vansteenkiste & Ryan, 2013).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됨과 동시에 직장에서의 안녕감, 만족감, 수행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다(문태형, 2009; 손재현, 2010; 장재윤, 최한별, 2007; 정수진, 2011; Lam & Gurland, 2008; Vansteenkiste, Neyrinck, Niemiec, Soenens, De Witte, & Van den Broeck, 2007).

내재적 동기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심리적 안녕감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심리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상담자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내재적 동기가 높은 상담자일수록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아진다(박형인, 2013; 이소연, 박남숙, 2014).

이혜수와 이희경(2011)은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낮게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Szymanski(1995)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가 직무만족감이 높다고 하였다. 상담자에게 심리적 안녕과 직무만족은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가 정신적 안정감에 소홀하게 되면 효율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내담자에 대한 공감, 존중, 긍정적 느낌 등의 결여가 상담장면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Maslach & Jackson, 1981).

이처럼 상담자의 욕구와 동기가 상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의 욕구와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조경림, 2010; 진화숙, 2011; Corey & Corey, 2003; Joo, 2004)에서 심층면접, 질문지, 관찰 등의 질적 연구법을 통해 상담자의 욕구와 동기에 대한 구성개념을 파악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상담자의 동기가 상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장묘옥, 1991; 류순덕, 2003), 상담자의 내재적 동기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측정하여 심리적 소진이나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박형인, 2013; 이소연, 박남숙, 2014; 이혜수, 이희경, 2011; Szymanski, 1995)들도 있지만,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척도를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이정화 등(2011)이 상담자 진로 결정 동기 척도를 개발하였지만, 상담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동기를 측정할 뿐, 현재 상담과정 중의 상담자의 욕구와 동기를 함께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성장과 심리적 안녕감, 상담만족 및 성과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자기결정성 모형의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을 근거로 하여, 상담장면에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는 상담자의 내재적 동기를 '상담자 스스로 내담자와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상담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정의하고,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에 따라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상담자의 자율성은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한다. 상담자의 관심, 흥미, 의견, 목표, 가치 등이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며, 자신의 의지를 따르려는 진솔한 자기 표현과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의 근본 원인을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의 욕구(Farber, Manevich, Metzger, & Saypol, 2005; Henry, Sims, & Spray, 1973; Joo, 2004; Skovholt & Rønnestand, 1992),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기를 잘 인식하게 되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기 성장의 욕구(Guttman & Daniels, 2001; Joo, 2004; Kottler, 1993; Pavlicevic, 1997),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기 가치 확인의 욕구(조경림, 2010), 내담자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조경림, 2010; Corey & Corey, 2003), 물질적 대가보다 내담자의 변화 같은 심리적 보상을 따르려는 만족감(조경림, 2010) 등의 상담자의 욕구들은 상담활동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행동의 주체가 상담자 자신에게 있고, 상담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를 세운다는 면에서 자율성에 해당한다.

상담자의 유능성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이며, 상담자로서의 행동에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상담능력 자체라기보다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상담자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상담자의 기술, 재능, 능력, 가능성 등을 실행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은 욕구(조경림, 2010), 내담자들의 다양한 상황,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는 다양성과 융통성의 욕구(조경림, 2010; Corey & Corey, 2003), 상담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이론과 상담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Joo, 2004) 등의 상담자의 욕구들은 자신의 재능을 표현할 기회를 갖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유능성에 해당한다.

상담자의 관계성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등을 말한다. 그리고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상호적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가깝고, 배려하는 관계를 형성하길 바랄 뿐만 아니라, 내담자도 상담자와 동일한 관계형성을 원하길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담자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조경림, 2010; Corey & Corey, 2003; Joo, 2004),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고자 하는 욕구(조경림, 2010; Joo, 2004) 등의 상담자의 욕구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관계성에 해당한다. 상담자의 관계성은 상담관계를 통해 내담자를 돕기 때문에, 친밀감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하위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전제 하에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이다(김계수, 2010). 연구자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근거로 하여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하위요인을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미리 설정해 놓고, 각 문항들이 정의된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구성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인별로 문항을 선정, 제거하는 방법으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미 기본 심리적 욕구의 3요인 구조가 학문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일(Deci, Ryan, Gagné, Leone, Usunov, & Kornazheva, 2001; Kasser, Davey, & Ryan, 1992), 관계(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일반(Gagné, 2003) 영역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요인으로 이루어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는데, 요인분석 없이 이론적 근거에 따라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관계(이민희, 2007; 정교영, 신희천, 2010; 한소영, 신희천, 2006), 체육 및 스포츠(김덕진, 양명환, 2013; 박중길, 김기형, 2008; 박중길, 이경환, 2011;

최문형, 2009), 청소년(김현주, 2010; 전성희, 2014), 특수교육(김정숙, 2011)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한 경우에도,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요인으로 이루어졌음이 검증되었다. 한편, 한소영과 신희천(2009; 2010)은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기본 심리적 욕구 3가지 요인이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고 있고, 기존 연구들에서 3요인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의 목적인 요인 수의 확인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보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분석의 목적인 요인 수의 파악(김석우, 2010)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 구조의 모델 적합도를 산출하여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상담자들의 응답내용, 문헌연구, 기존 척도를 종합하여 문항을 추출하고, 모델적합도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된 척도를 타당화 하기 위해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준거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성타당도는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유사한 기존의 척도(직무자율성, 자기효능감, 작업동맹)와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준거를 상담만족, 상담성과, 상담자 성장으로 보고, 상담만족(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만족), 상담성과(상담자와 내담자의 공감수준, 내담자의 작업동맹, 내담자의 상담성과), 상담자 성장(상담자 발달수준)과 관련된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상담자-내담자 1:1 면접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 중(53.1%)이거나, 수련 과정 중(46.8%)인 상담자 27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격 종류로는 상담심리사(33.1%), 청소년상담사(25.8%), 예술치료사(8.6%), 전문상담사(6.3%), 임상심리사(6.2%), 기타(20.1%) 등이 있었다. 학력은 석사 졸업(38.7%)이 가장 많았으며, 석사 재학(30.6%), 박사 재학(6.6%), 박사 졸업(5.9%), 박사 수료(5.5%) 순이었다. 종사기관은 청소년센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복지관, 기업, 시설상담실, 군대, 병원 등으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 252명(93%), 남성 19명(7%)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3세에서 65세까지(평균 37.70, 표준편차 9.36), 상담기간은 1년 미만부터 26년 이하까지(평균 3.69, 표준편차 3.64), 상담 사례 수는 100사례 미만부터 500사례 이하까지(평균 103.76, 표준편차 208.76) 분포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상담자가 평가하는 상담활동 수행과 성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지만,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작용 과정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평가하는 상담자 활동의 수행과 성과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271명의 상담자 가운데, 88명의 상담자가 내담자와 쌍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내담자는 중학생 이상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약물처방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로, 여성 67명(76.1%), 남성 21명(23.9%)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13세에서 49세까지 분포하였다.

2. 연구절차

1) 문항개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기결정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 및 선행연구, 상담자의 욕구와 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문항풀(item pool)을 구성하는 단계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과 상담자의 욕구와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 기존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http://www.psych.rochester.edu/SDT/measures/bpns_scale.php; 이명희, 김아영, 2008)와 상담자의 성취목표 척도(정은선, 1999),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상담자들이 응답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자율성 28문항, 유능성 38문항, 관계성 34문항,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진 문항풀을 완성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는 연구자가 정의한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제시하고,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만족했었던 경험과 불만족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자유로이 기술하도록 하였다. 설문에는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 27명이 참여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와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하여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및 상담자는 연구자가 정의한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 후, 각 문항이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 재학 이상, 상담 관련 1급 자격 소지자, 상담자 대상 연구 또는 상담 관련 척도 개발 경험이 있는 연구자 등의 15명의 전문가가 문항을 평가하였다. 전문가의 문항평정에서 3.6 이하의 점수를 받은 문항을 제외하여, 자율성 13문항, 유능성 20문항, 관계성 21문항, 총 54문항

을 1차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안면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학 졸업 이상, 상담 관련 2급 자격 소지자로 구성된 48명의 일반 상담자들이 전문가에 의해 1차로 선정된 문항을 평가하였다. 일반 상담자들의 문항평정에서 3.6 이하의 점수를 받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별 균형을 위해 평점이 높은 순으로 각 요인별로 9문항씩, 총 27문항을 최종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네 번째는 예비조사(pilot test) 단계로,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상담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답하였다. 실시 결과, 27개 문항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5-6분 정도였으며, 문항의 이해도 및 난이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설문조사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개발을 위해 상담자 271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상담관련 학회 및 교육에 참석한 상담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230부를 배부하여, 185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2부를 제외하고 183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조사에 참여한 경우는, 연구자가 상담자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동봉하거나 직접 제시하고,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자에게 협조를 구했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통해 설문지를 받도록 했고, 입구에 연구자의 확인 도장이 날인된 봉투를 별도로 배부하여, 설문 종료 후 접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비밀보장이 되도록 하였다. 상담자-내담자 설문지는 100부를 배부하였으며, 88부를 회수하여 모두 연구에 활용하였다.

3) 분석

문항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제거 시 신뢰도,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고려하여 각 요인별로 5문항씩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15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3요인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3요인으로 이루어진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가 개발되었다.

타당화 단계에서 구성타당도 검증은 상담자 2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준거타당도 검증은 내담자 88명을 포함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척도의 문항들이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경험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잘 반영하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3요인이 상담만족과 상담성과 변인과의 상관이 높아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가 만족되었다.

3. 측정도구

직무자율성 척도 (The work design questionnaire; WDQ)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Morgeson과 Humphrey(2006)이 개발한 직무자율성 척도를 구자희(2009)가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라는 표현 대신 상담에 알맞은 표현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구자희(2009)의 연구에서 .828, 본 연구에서는 .936이었다.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 척도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 CASES)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하위요인인 유능성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Lent 등(2003)이 개발한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수현 등(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조력기술, 회기관리,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10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이수현 등(2007)의 연구에서 .790에서 .960까지, 본 연구에서는 .946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용 작업동맹 척도-단축형 (Working Alliance Inventory-Short Form; WAI-S)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하위요인인 관계성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Tracey와 Kokotovic(1989)가 개발한 작업동맹 척도 단축형 질문지를 이수림(2008)이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이수림(2008) 연구에서 .870, 본 연구에서는 .894로 나타났다.

상담만족도 질문지-상담자용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Therapist Form; CSQ-T)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Larsen 등(1979)과 김원중(1993)의 척도를 비교하여 개발한 황인호(2004)의 상담만족도 질문지를 한소영(2010)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원척도는 내담자의 상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황인호(2004)가 상담자용과 내담자용으로 제작하였고, 표현이 어색한 부분을 한소영(2010)이 수정한 것이다.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황인호의 연구에서 .970, 한소영(2010)의 연구에서 .931, 본 연구에서는 .940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용 공감척도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BLRI)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Barrett-Lennard(1981)가 개발한 관계검사를 정방자(1985)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관계검사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수준, 존중수준, 일치성, 존중의 무조건성, 개방성을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감수준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는 내담자를 높은 수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선행연구에서 .700에서 .750, 본 연구에서는 .776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Korea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심홍섭(1998)의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대해 상담 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윤리적 태도 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로서 자신의 발달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심홍섭(1998)의 연구에서 .780에서 .920까지, 본 연구에서는 .956으로 나타났다.

상담만족도 질문지-내담자용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Client Form; CSQ-C)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상담만족도 질문지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장이 약간 수정된 것 외에 상담자용 상담만족도 척도와 같다. 신뢰도(Cronbach's α)는 황인호(2004)의 연구에서 .970, 한소영(2010)의 연구에서 .96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1이었다.

내담자용 작업동맹 질문지 (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Horvath와 Greeberg(1989)가 개발한 작업동맹 질문지를 홍수현(2001)이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홍수현(2001)의 연구에서 .770에서 .910, 본 연구에서는 .952로 나타났다.

내담자용 공감척도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BLRI)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공감척도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의 공감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문장이 약간 수정된 것 외에 상담자용 공감척도와 같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선행연구에서 .700에서

.7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9이었다.

내담자용 상담성과 질문지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정남운(1998)이 제작한 상담성과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상담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된 정도, 상담만족도, 상담을 통해 얻은 효과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남운(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8로 나타났다.

상담자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수렴타당도 검증에 사용한 변인들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직무자율성 척도는 직무에 관해 얼마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과 기회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써(Morgeson & Humphrey, 2006), 상담자가 자율적으로 상담과정 및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자율성과 유사하다.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는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상담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써(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2007),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이고자 하고, 상담자로서의 행동에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고자 하는 유능성과 유사하다. 작업동맹 척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목표와 과제에 동의하고 합의하는 정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정서적 유대감을 측정하는 것으로써(Horvath & Greenberg, 1989), 상담자가 상담관계를 통해 내담자를 돕고자 하는 것, 상담자와 내담자 상호간에 연결되고자 하는 관계성과 유사하다.

상담자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에 사용한 변인들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경험은 내재적 동기의 발생에 매우 중요하다(Deci & Ryan, 1985b;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또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재적 동기의 발생은 심리적 건강과 만족감, 수행성과,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아영, 이명희, 2008; 문태형, 2009; 손재현, 2010; 이민희, 2007; 이지현, 2012; 장재윤, 최한별, 2007; 정수진, 2011; 조한익, 권혜연, 2010; 조현철, 2011; Lam & Gurland, 2008; Miserandino, 1996; Reeve, 2008; Ryan & Deci, 2002; Vansteenkiste, Simons, Lens, Sheldon, & Deci, 2004; Vansteenkiste, et al., 2007). 이러한 관점에 따라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준거관련 변인을 상담만족, 상담성과, 상담자의 성장으로 선정하였다.

상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상담만족 질문지를, 상담자의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를, 상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상담성과 질문지와, 공감 척도, 작업동맹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상담기술의 핵심요소인 공감은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통요인이며(박성희, 2004; Wynn & Wynn, 2006), 작업동맹은 상담성과를 일관적으로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다

(Horvath & Symonds, 1991; Martin, Garske, & Davis, 2000).

4. 분석방법

SPSS 18.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신뢰도, 상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결측값들은 EM 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방식으로 대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여 모델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척도 개발

상답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예비문항 27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 전체와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문항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예비문항의 상답자 기본 심리적 욕구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평균	표준편차
자율성	34.943	3.470
유능성	36.600	3.338
관계성	35.235	3.539
기본 심리적 욕구 전체	106.778	9.214

일반적으로 문항개발에서는 문항 평균이 중간 정도이고 표준편차가 큰 문항(한국심리학회, 1998),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전체 또는 요인별 신뢰도 보다 낮은 문항 그리고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가 높은 문항(탁진국, 2009)을 바람직한 문항으로 본다. 따라서 문항 평균 중에서 5점 Likert 척도에서 높은 극단치라고 볼 수 있는 4.3 이상의 4개 문항, 문항 제거 시 신뢰도와 요인별 신뢰도가 같아 신뢰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항 1개를 제외하였다.

적절한 문항 수를 가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응답자의 성실한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문항 수가 적으면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한 척도가 여러 개의 하위 검사들로 구성될 경우에는 1개의 하위요인 당 최소 3개의 문항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한국심리학회, 1998). 또한 상답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는 상답만족도 및 성과와 같은 다른 척도들과

함께 실시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항 수가 많으면 응답자의 성실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위요인 당 3개보다는 많으면서 적절한 문항 수라고 생각되는 5문항씩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요인별로 문항 총점간 상관계수가 높은 순으로 5문항씩, 총 15문항을 추출하였다.

<표 2> 예비문항의 문항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	요인별 신뢰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제거 시 신뢰도	문항-총점간 상관계수	
.892	자율성	.730	03	3.930	.669	.689	.637
		05	4.050	.651	.715	.506	
		09	4.150	.588	.718	.474	
		12	3.510	.891	.715	.591	
		16	3.570	.741	.706	.576	
		18	3.580	.759	.704	.589	
		21	3.950	.593	.705	.550	
		24	3.970	.625	.703	.568	
		26	4.220	.592	.697	.598	
	유능성	.726	04	4.090	.699	.702	.569
		06	3.570	.634	.716	.483	
		10	4.060	.600	.684	.638	
		11	3.700	.752	.726	.482	
13		3.840	.639	.707	.529		
관계성	.788	14	4.600	.605	.683	.643	
		22	4.400	.676	.705	.548	
		25	4.330	.589	.684	.637	
		27	4.010	.748	.708	.556	
		01	3.980	.593	.776	.543	
		02	4.010	.537	.765	.619	
07	3.900	.555	.756	.677			
08	3.720	.903	.787	.611			
15	3.700	.700	.748	.724			
17	3.780	.570	.762	.638			
19	4.380	.569	.780	.513			
20	3.950	.598	.762	.641			
23	3.800	.700	.774	.588			

* 밑줄 : 기준에 의해 제거한 문항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Goodness of Fit Index(GFI), Nonnormed Fit Index(NNF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사용하였다. GFI, NNFI,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모형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Marsh, Balla, & McDonald, 1988).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08 이하이면 양호한, .10 이하이면 보통,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김계수, 2010; 우종필, 2012;

Browne & Cudeck, 1993).

추출한 15문항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GFI=.928, NNFI=.912 CFI=.927, RMSEA=.056으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3요인 모델이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표 3>). 최종 선정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으며, <표 6>에 요인별 문항 및 출처를 제시하였다.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57,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관계성 .774, 유능성 .639, 자율성 .63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가 .60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김석우, 2010; Nunally, 1978).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617에서 .679 사이로,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로 나타났다으며, 그리고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전체와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870에서 .881로,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표 5>).

<표 3>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3요인 모델 적합도 검증

χ^2	df	p	GFI	NNFI	CFI	RMSEA
160.023	87	.000	.928	.912	.927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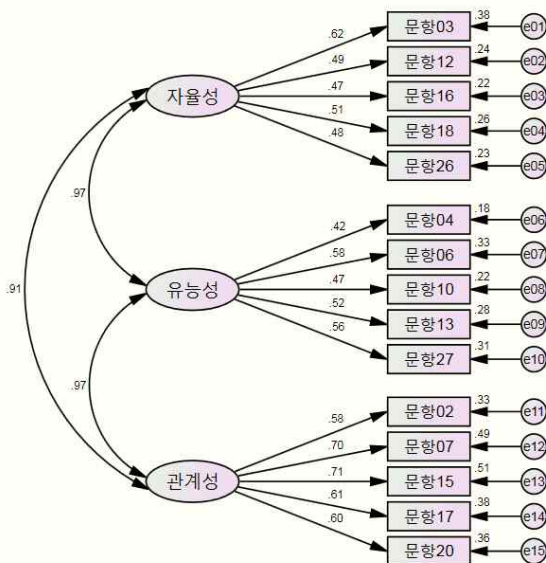
<표 4>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N=271)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s α)
자율성	18.819	2.347	.633
유능성	19.570	2.129	.639
관계성	19.349	2.155	.774
기본 심리적 욕구 전체	57.539	5.794	.857

<표 5>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하위척도 간 상관 (N=271)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유능성	.617**		
관계성	.640**	.679**	
기본 심리적 욕구 전체	.870**	.870**	.881**

**p < . 01



[그림 1]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6> 최종 선정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요인 및 문항

요인	번호	문항 내용	출처
자율성	03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척도
	12	내담자의 반응이 걱정되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될지 모르겠다. (R)	설문
	16	자유롭게 평소 내 모습대로,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척도
	18	나의 사례를 어떻게 다룰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척도
	26	나는 상담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문헌
유능성	04	상담과정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R)	문헌
	06	내게 주어진 사례를 잘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척도
	10	상담을 통해 다양한 내담자와 사례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	문헌
	13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설문
	27	내담자가 상담장면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한다. (R)	설문
관계성	02	나와 내담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 인간으로서 수용한다.	설문
	07	내담자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문헌
	15	나와 내담자의 라포가 견고하다.	설문
	17	내담자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느낀다.	척도
	20	내담자와 내가 함께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설문

* 각 문항을 고안한 출처 : 척도-기존척도, 문헌-문헌연구, 설문-설문조사

* (R) : 역채점 문항

2. 타당화

1) 구성타당도 검증

<표 7>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와 수렴타당도 변인 간 상관 (N=271)

수렴타당도 변인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직무자율성	.373**	.382**	.272**	.322**
상담자 자기효능감	.660**	.544**	.560**	.626**
상담자 작업동맹	.757**	.592**	.675**	.717**

**p < . 01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전체 총합은 상관계수 .373에서 .757로, 수렴타당도 변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상담자의 자율성과 직무자율성이 $r=.382$, 상담자의 유능성과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이 $r=.560$, 상담자의 관계성과 상담자 작업동맹이 $r=.717$ 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나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하위요인과 유사한 척도들 간의 수렴타당도가 적절하게 검증되었다. 그리고 직무자율성은 자율성과,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과 상담자 작업동맹은 관계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기본 심리적 욕구 3요인 모두 상담자 작업동맹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표 7>).

2) 준거타당도 검증

<표 8>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와 공인타당도 변인 간 상관 (상담자 N=271, 내담자 N=88)

공인타당도 변인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상담자 상담만족	.685**	.531**	.631**	.639**
공감수준	.642**	.540**	.583**	.557**
발달수준	.694**	.587**	.581**	.652**
내담자 상담만족	.467**	.404**	.405**	.424**
작업동맹	.598**	.487**	.524**	.570**
공감수준	.464**	.334**	.386**	.511**
상담성과	.454**	.327**	.463**	.411**

**p < . 01

상담자 집단에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전체 총합은 상관계수 .642에서 .694로, 공인타당도 변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하위요인과도 모든 변인들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공인타당도가 적절하게 검증되었다. 내담자 집단에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전체 총합은 상관계수 .454에서 .598로, 공인타당도 변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하위요인과도 모든 변인들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공인타당도가 적절하게 검증되었다(<표 8>).

이와 더불어,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준거변인들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준거로 사용된 상담성과 관련 변인들은 상담자의 경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mmings, Slemon, & Hallberg, 1993; Jennings, & Skovholt, 1999). 따라서 상담자 경력 변인을 통제 한 후에도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상담성적을 유의하게 설명한다면, 준거변인에 대한 상담자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중요성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 단계에는 상담자의 경력(상담활동 기간, 상담한 사례 수)을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추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표 9>에 제시하였다.

상담자 집단에서 상담만족, 상담성과, 상담자 성장에 대한 설명량은 상담자 경력만을 투입한 1단계(상담만족 9.9%, 공감수준 5.3%, 발달수준 16.0%)보다,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상담만족 37.9%, 공감수준 37.5%, 발달수준 35.1%)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내담자 집단에서 상담만족, 상담성과에 대한 설명량은 상담자 경력만을 투입한 1단계(상담만족 7.7%, 작업동맹 7.5%, 공감수준 5.7%, 상담성과 4.9%)보다,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상담만족 15.3%, 작업동맹 28.8%, 공감수준 16.5%, 상담성과 16.3%)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 9> 상담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상담자 N=271, 내담자 N=88)

종속변인	단계	상담자 독립변인	R ²	R ² 변화량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상담자 상담만족	1	경력(사례수)	.099***	.099	.003	.002	.094	1.386	
		경력(기간)			.528	.139	.258***	3.814	
		기본심리욕구			.745	.054	.658***	13.692	
	2	경력(사례수)	.478***	.379	.000	.002	.008	.150	
		경력(기간)			.163	.109	.080	1.493	
		기본심리욕구			.745	.054	.658***	13.692	
	공감수준	1	경력(사례수)	.053**	.053	.002	.002	.060	.864
			경력(기간)			.439	.157	.196**	2.804
			기본심리욕구			.835	.066	.649***	12.740
2		경력(사례수)	.429***	.375	-.001	.002	-.024	-.432	
		경력(기간)			.075	.125	.033	.598	
		기본심리욕구			.835	.066	.649***	12.740	
발달수준		1	경력(사례수)	.160***	.160	.014	.006	.165*	2.442
			경력(기간)			1.605	.367	.295***	4.368
			기본심리욕구			2.019	.154	.638***	13.113
	2	경력(사례수)	.512***	.351	.006	.004	.074	1.432	
		경력(기간)			.623	.291	.114*	2.143	
		기본심리욕구			2.019	.154	.638***	13.113	
	내담자 상담만족	1	경력(사례수)	.077*	.077	.000	.008	.006	.042
			경력(기간)			.770	.370	.273*	2.083
			기본심리욕구			.497	.124	.442***	4.005
2		경력(사례수)	.229***	.153	-.003	.008	-.048	-.396	
		경력(기간)			.287	.361	.102	.795	
		기본심리욕구			.497	.124	.442***	4.005	
작업동맹		1	경력(사례수)	.075*	.075	.005	.023	.030	.206
			경력(기간)			1.680	.966	.253	1.740
			기본심리욕구			1.675	.284	.603***	5.897
	2	경력(사례수)	.363***	.288	.000	.019	-.002	-.013	
		경력(기간)			.001	.855	.000	.002	
		기본심리욕구			1.675	.284	.603***	5.897	
	공감수준	1	경력(사례수)	.057	.057	.010	.011	.125	.887
			경력(기간)			.486	.488	.141	.997
			기본심리욕구			.652	.163	.455***	3.996
2		경력(사례수)	.223***	.165	.005	.010	.067	.519	
		경력(기간)			-.080	.468	-.023	-.170	
		기본심리욕구			.652	.163	.455***	3.996	
상담성과		1	경력(사례수)	.049	.049	.011	.011	.146	1.061
			경력(기간)			.332	.468	.098	.709
			기본심리욕구			.641	.157	.453***	4.085
	2	경력(사례수)	.211***	.163	.007	.010	.096	.755	
		경력(기간)			-.248	.451	-.073	-.550	
		기본심리욕구			.641	.157	.453***	4.085	

*p < .05, **p < .01,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상담장면에서 경험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자들의 응답내용, 선행연구와 기존 척도들을 기초로 연구자가 고

안한 문항들로 문항풀을 만들었다.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일반 상담자의 안면타당도 검증, 상담자와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15문항의 상담자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57,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33에서 .77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추출한 15문항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GFI=.928, NNFI=.912 CFI=.927, RMSEA=.056으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3요인 모델은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은 15명의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48명의 상담자에 의한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선택되었다. 따라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일반형(이명희, 김아영, 2008)과 비교하여 상담장면의 특수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성의 경우, 일반형 척도가 결정권을 강조하는 반면('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 상담자 척도는 진솔함을 강조하는 표현('나는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평소 내 모습대로, 그대로 있을 수 있다')이 포함되었다. 이는 자율성이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 점(Ryan, 2005)을 반영하면서,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보다 진솔성을 중요시하는 상담장면의 특성(Rogers, 1961; Mearns & Cooper, 2005; Corey, 2008)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능성을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형 척도에서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아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데 비해, 상담자 척도에서는 '상담과정에서 내가 기여', '내게 주어진 사례'처럼 상담장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에는 동일한 상담장면이지만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한소영, 신희천, 2010)에서 찾기 어려운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관계성에 있어서, 내담자 척도가 상담자에 의한 내담자의 일방적인 관계성 만족을 진술한 반면('상담자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는다', '든든한 지지자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상담자 척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주체가 되어 진술된 문항이 포함되었다('나와 내담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 인간으로서 수용한다', '나와 내담자의 라포가 견고하다', '내담자와 내가 함께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상담관계에서 중요한 작업동맹이 상담자나 내담자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 둘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상담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Bordin(1979)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와 상담자의 검토,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항은 소속 요인과의 관계가 명확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상담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라는 자율성 문항은 문헌연구를 통해 고안된 것으로, 상담자의 자기 성장의 욕구(Kottler, 1993; Pavlicevic, 1997; Guttman & Daniels, 2001)를 반영하고 있다. 상담자의 자기 성장의 욕구는 내담자를 돕는 상담과정을 통해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하

는 바람을 말한다. 성장에 가치를 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상담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는 점, 성장이라는 목표가 상담을 통해 표현되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담자의 자기 성장의 욕구는 자율성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상담을 통한 성장'이라는 표현이, '인간적인 성장'이 아니라, '상담 전문가로서 기술과 능력의 성장'을 의미한다면, '나는 상담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문항은 상담자의 기술, 능력 등을 실행할 수 있길 바라며, 상담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라는 상담자의 유능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들을 통해 '나는 상담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문항이 자율성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는 직무자율성,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 상담자 작업동맹과의 상관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여 수렴타당도가 만족되었다. 그러나 직무자율성은 자율성과, 상담자 작업동맹은 관계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은 연구자의 가설과 달리 유능성보다는 관계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추측해 본다면,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 척도가 내담자-상담자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과 기술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담자의 관계성과 유능성을 중복해서 수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자의 가설대로,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3가지 수렴타당도 변인들 중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수렴타당도 변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3요인 모두 상담자 작업동맹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추측해 보면, 우선은 작업동맹 척도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정서적 유대감,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목표와 과제에 동의하고 합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Horvath & Greenberg, 1989)에서 찾을 수 있다. 정서적 유대감은 상담자의 관계성과, 상담목표와 과제에 동의하고 합의하는 것은 상담자의 유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작업동맹이 관계성과 유능성에 함께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추측되는 원인은 작업동맹이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Greenson, 1965)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상담에 임하면서 우선적으로 내담자와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한다. 내담자와 관계를 잘 형성하게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에 대해서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을 얻은 상담자는 상담과정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가 상담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는 경험은 효과적인 작업동맹에서 시작되어 관계성을 만족하게 하고, 이후 유능감을 경험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자율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모두 작업동맹과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능한 상담자의 특성을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것(Seligman, 2002),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상담기술을 상담관계에 적용하는 것(Boxill, 1995)으로 보는 점, 유능하면 자율적이고자 한다

는 점(이명희, 김아영, 2008) 등을 종합해 봤을 때에도, 상담자의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이 작업 동맹과 모두 높은 상관을 나타낼 수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La Guardia 등(2000)에 따르면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기 때문에,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3요인이 모두 작업동맹과 상관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유사한 척도들이 짝지어진 해당요인 뿐만 아니라, 다른 하위요인과의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정교영과 신희천(2010), 한소영과 신희천(2009)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교영과 신희천(2010)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들이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척도 개발과정에서 측정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소영과 신희천(2009)은 기존의 척도가 개발된 척도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짝지어진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상관계수가 낮을 수 있으며, 측정 개념이 비슷한 다른 요인과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정교영, 신희천, 2010; 한소영, 신희천, 2009)은 개발된 척도와 기존의 유사한 척도들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기 때문에 타당도가 만족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성희(2014),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도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 여부와 무관하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각각 짝지어진 기존의 유사한 척도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면, 타당도가 만족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본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기존의 유사한 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므로 수렴타당도가 적절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3요인의 개념을 고유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과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만족 및 상담성과와의 상관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여 공인타당도가 만족되었다. 그리고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상담자 경력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만족 및 상담성과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은 상담자의 경력이 상담만족 및 성과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Cummings, Slemon, & Hallberg, 1993; Jennings, & Skovholt, 1999), 본 연구 결과에서는 상담자 경력을 통제 한 후에도,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상담만족 및 성과를 유의하게 설명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만족 및 상담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상담자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개발은 상담 실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긍정적인 상담성과를 위해서 상담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상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자율성과 유능성에 비해 관계성 만족이 낮은 경우의 상담자가 있다면, 상담과정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과 상담성과에 기여를 하기 위

해 행동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향상시키고, 내담자와 함께 문제해결을 하고자 행동하는 것이 상담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상담자 교육에 있어서도 상담성과와 관련된 상담자의 심리적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지지하고 교육함으로써 긍정적 상담성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심리적 건강성과 업무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는 치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Sussman, 1992),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담자는 상담활동을 훌륭히 수행할 수 없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만족이 높을수록 업무에 몰입하게 되며(Klassen, Perry, & Frenzel, 2012),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심리적 소진을 낮게 경험한다(이혜수, 이희경, 2011). 따라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자의 심리적 건강성 증진은 물론 업무 만족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 개개인의 노력으로 내담자의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기관의 운영방식이 상담자의 심리적 요인을 지지하고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상담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높다 하더라도, 상담기관에서 사례 운영에 대한 상담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거나, 상담자로서의 유능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감소하고, 이 때문에 상담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기관에서는 상담자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선정이 제한적이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상담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본 연구의 표집도 271명의 참가자 중, 단 19명만이 남성상담자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일반화에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성별에 따른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담자의 경력이 상담활동 기간 1년 미만부터 26년까지, 상담한 사례 수 100사례 미만부터 500사례까지였으나, 상담활동 기간 평균 3.69, 표준편차 3.64, 상담한 사례 수 평균 103.76, 표준편차 208.76로 나타나 연구대상의 경력분포가 다소 편중되었다. 추후 연구에서 경력에 따른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차이,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상담만족 및 상담성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된 척도의 하위요인 별 신뢰도(Cronbach's α)가 허용기준치를 상회하였으나,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하위요인 별 신뢰도가 허용기준치를 충분히 넘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개발된 척도가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안정적으로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

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다수의 전문가와 상담자의 검토, 확인적 요인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가진 척도를 개발하였지만,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모두 거치는 일반적인 척도 개발절차를 엄격히 지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문항이 3가지 요인 중에 어느 요인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각 문항들이 소속요인의 개념들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한 척도들이 기본 심리적 욕구의 하위요인을 중복해서 측정하거나, 하위요인의 고유한 개념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고유하게 측정하는 유사한 척도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수렴타당도 변인과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고르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직무자율성 척도는 일반적인 직무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연구를 위해 상담에 알맞은 표현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직무자율성 척도가 상담자의 자율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상담자 자율성과 직무 자율성의 상관계수도 수렴타당도 변인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고유하게 측정하는 척도를 발굴하여 다시 한 번 수렴타당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는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가진 척도로써,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후속 연구들에서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활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만족, 상담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상담실제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자희(2009). 직무자율성이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유연한 역할 지향성의 매개효과 및 상사의 변화에 대한 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계수(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덕진, 양명환(2013). 스포츠 상황에서 기본적 심리욕구만족척도 개발과 자기결정이론의 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1), 29-58
- 김석우(2010).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 AMOS 활용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아영(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아영, 이명희(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원중(1993). 상담자 자기 개방이 관찰자의 상담평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정숙(2011).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본적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적용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 교육학회지**, 54(4), 305-321.
- 김현주(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 안녕감 설명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류순덕(2003). 전화상담 자원봉사자의 상담 동기: 유지요인과 여성주의 정체성이 상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문태형(2009). 유아교사가 인식한 자기결정성 및 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유아교사의 직무만족의 관계. **아동교육**, 18(3), 69-81.
- 박성희(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박종길, 김기형(2008). 운동선수의 기본 심리적 욕구 검사지 개발과 타당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53-72.
- 박종길, 이경환(2011). 초등학생의 체육 기본적 심리 욕구 검사지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4), 61-77.
- 박형인(2013). 상담자의 소진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내재적 동기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손재현(2010). 직업 무용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기본 심리욕구 및 몰입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9(6), 525-536.
- 심홍섭(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이명희, 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민희(2007). 학습장면에서 자기결정론의 동기화 경로 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소연, 박남숙(2014).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 청소년상담자와 대학상담자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5(1), 73-92.
- 이수림(2008).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2007).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 국내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55-673.
- 이장호(1982).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 이정화, 이상민, 박성륜, 이지희(2011).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2(6), 2145-2161.
- 이지현(2012). 사이버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의 자율성 지지와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수, 이희경(2011).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433-1499.
- 장묘옥(1991). 상담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재윤, 최한별(2007).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율적 동기화의 매개효과 및 고/저 수행집단간의 차이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2), 113-133.
- 전성희(2014). 한국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척도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6(1), 31-64.
- 정교영, 신희천(2010). 아동용 어머니-자녀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753-775.
- 정남운(1998). 상담과정에서의 대인관계적 상보성과 상담성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방자(1985).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수진(2011). 조직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기결정성, 사회적 관계가 직무만족과 커뮤니케이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정은선(1999). 상담자의 성취목표와 자의식이 상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조경림(2010). 음악치료사의 길을 선택하고 유지해가는 치료사들의 동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한익, 권혜연(2010).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1), 47-68.

- 조현철(2011). 내외적 학습동기, 자기결정성, 목표지향, 자기자각, 지능관 및 자기조절학습전략 요인들의 학습태도,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 *교육심리연구*, 25(1), 33-60.
- 진화숙(2011). 아동상담자로 되어가는 과정의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13-55.
- 최문형(2009). 체육수업에서 아동의 기본적 심리욕구 척도의 개발과 타당성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87-100.
- 탁진국(2009).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국심리학회(1998).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지침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한소영(2010).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상담성과.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한소영, 신희천(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한소영, 신희천(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한소영, 신희천(2010).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973-992.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수현(2001). 상담 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황인호(200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Augelli, A., Danish, S., Allen, H., & Conter, J. (1980). *Helping skills: A basic training program*.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 Barrett-Lennard. (1981). The empathic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16, 252-260.
- Boxill, E. H. (1995).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Music therapy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김태련 역(1998).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orey, G. (2008).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8th ed)*. CA: Brooks/Cole Pub. Co.
- Corey, M., & Corey, G. (2003).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 Co.
- Cowan, D. S. (1996). Meeting whose needs?: The personal needs of the therapist. *Music Therapy Perspectives, 14*, 50-52.
- Cummings, A. L., Slemon, A. G., & Hallberg, E. T. (1993). Session evaluation and recall of important events as a function of counselor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56-165.
- Deci, E. L. (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05-115.
- Deci, E. L. (1972a).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reinforcement, and ineq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113-120.
- Deci, E. L. (1972b). The Effects of contingent and non-contingent rewards and control on intrinsic motiv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8*, 217-229
- Deci, E. L., & Ryan, R. M. (1985b).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y Inquiry, 11*, 319-338.
- Deci, E. L., Ryan, R. M., Gagné,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930-942.
- Farber, B. A., Manevich, I., Metzger, J., & Saypol, E. (2005). Choosing psychotherapy as a career: Why did we cross that roa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8), 1009-1031.
- Gagné, M. (2003).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nd autonomy orientation in prosocial behavior engagement. *Motivation and Emotion, 27*, 199-223.
- Greenson, R. R. (1965).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Guggenbuhl-Craig, A. (1971). *Power in the helping profession*. Dallas: Spring Publications.
- Guttmann, J., & Daniels, S. (2001). What do school counselors gain from their role as psychotherapists?. *Educational Psychology, 21*(2), 203-218.
- Henry, W. E., Sims, J. H., & Spray, S. L. (1973). *Public and private lives of psychotherapists*. San Francisco: Jossey-Bass.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2), 139-149.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223-233.
-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3-11.
- Joo, E. S. (2004). The motivational themes of psychotherapists : A preliminary qualitative stud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1), 29-42.
- Kasser, T., Davey, J., & Ryan, R. M. (1992). Motivation, dependability, and employee-supervisor discrepancies in psychiatric vocational rehabilitation settings. *Rehabilitation Psychology, 37*, 175-187.
- Klassen, R. M., Perry, N. E., & Frenzel, A. C. (2012). Teachers' relatedness with students: An underemphasized component of teach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1), 150-165.
- Kottler, J. A. (1993). *On being a therapist*. San Francisco: Jossey-Bass.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am, C. F., & Gurland, S. T. (2008). Self-determined work motivation predicts job outcomes, but what predicts self-determined work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4), 1109-1115.
- Larsen, D. L., Attkinsson, C. C., Hargreaves, W. A., & Nguyen, T. D. (1979). Assessment of client/patient satisfaction : Development of a general scal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 197-207.
- Lent, R. W., Hill, C. E., & Hoffman, M. A.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97-108.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0.
- Martin, D. J., Garske, M. K.,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438-450.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2), 99-113.

- Mearns, D., & Cooper, M. (2005). *Working at relational depth i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London: Sage.
- Miserandino, M. (1996). Child who do well in school: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ived competence and autonomy in above-average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 203-214.
- Morgeson, F. P., & Humphrey, S. T. (2006). The work design questionnaire(WDQ): Developing and validating a comprehensive measure for assessing job design and the nature of 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 1321-1339.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Pavlicevic, M. (1997). *Music therapy in context: Music, meaning and relationship*.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Pietrofesa, J. J., Leonard, G. E., & Van Hoose, W. (1978). *The authentic counselor(2n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Reeve, J. (2008). *동기와 정서의 이해[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정봉교 외 공역 (2011). 서울: 박학사.
- Rogers, C. R. (1952). Client-centered psychotherapy. *Scientific American, 187*, 66-74.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3), 397-427.
- Ryan, R. M. (2005). The developmental line of autonomy in the etiology, dynamics,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987-1006.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In S. Fiske (Ed.),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NY :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8). A self-determination approach to psychotherapy: The motivational basis for effective change. *Canadian Psychology, 49*, 186-193.
- Ryan, R. M., & Powelson, C. I. (1991). Autonomy and relatedness as fundamental to

- motivation and edu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60, 49-66.
- Ryan, R. M., Deci, E. L., Grolnick, W. S., & La Guardia, J. G. (2006). The significance of autonomy and autonomy support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Theory and method* (2nd ed., pp. 795-849). New Jersey : John Wiley & Sons, Inc..
- Seligman, M. E. (2002). 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New York: Wiley.
- Sussman, M. B. (1992). *A curious calling: Unconscious motivations for practicing psychotherapy*. Northvale, NJ: Jason Aronson.
- Szymanski, E. M. (1995). Rehabilitation counselor work motivation, job 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19(1), 51-67.
- Tracey, T. J., & Kokotovic, A. M. (1989). Factor structure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3), 207-210.
- Vansteenkiste, M., & Ryan, R. M. (2013). On psychological growth and vulner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as a unifying principle.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3(3). 263-280.
- Vansteenkiste, M., Neyrinck, B., Niemiec, C. P., Soenens, B., De Witte, H., & Van den Broeck, A. (2007). On the relations among work value orientation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job outcomes :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0(2), 251-277.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heldon, K. M., & Deci, E. L. (2004). Motivating learning, performance, and persistence: The synergistic effects of intrinsic goal contents and autonomy-supportive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 Social Psychology*, 87, 246-260.
- Wynn, R., & Wynn, M. (2006). Empathy as an interactionally achieved phenomenon in psychotherapy: Characteristics of some conversational resources. *Journal of Pragmatics*, 38(9), 1385-1397.
-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Self-Determination Theory: An approach to human motivation and personality,
http://www.psych.rochester.edu/SDT/measures/bpns_scale.php

- * 논문접수 2015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5년 3월 6일 / 2차 심사 2015년 5월 3일 / 게재승인 2015년 6월 9일
- * 임지영: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홍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서울강서 근로자건강센터 심리상담실에 재직 중이다.
- * E-mail: jyb612@empas.com
- * 김지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 E-mail: mongsanga@hongik.ac.kr

Abstract

Development of Counselor's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 focused on Self-determination's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

Lim, Ji-Young**

Kim, Ji-Hyeon***

In this study, based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of self-determination type model, sca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for the counselors was intended to be develop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is objective, the researcher prepared test item pool relevant to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that are sub-factors being suggested in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with test items designed through response contents of various counselors an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existing scale. Based on this, 15 test items that ar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of counselor comprising 3 factors including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were developed by selecting preliminary test items after passing through verification process of content validity of experts and face validity of general counselor and performing pilot, main survey. Reliability of developed scale(Cronbach's α) was represented to be good as .857 in total test items and within the range of .633-.774 in sub-factors.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correlation with scales measuring concept similar to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of counselor,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represented as a whole and so, its convergent validity was satisfi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correlation scales that may forecast counseling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represented as a whole and so, its concurrent validity was satisfied. Developed scales like this well reflecte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being experienced in counseling scene by counselor and it was verified that such scales could explain counseling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research direction in the future was suggested.

Key words: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s,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counseling satisfaction, counseling performance

* This paper is reconstituted article from Lim, Ji-Young's master's dissertation.

** First author, Master,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Hongik University